



HOME 경제 경제일반

창원, 군항제 '한복 체험부스' 운영

2018년 03월 28일 (수) | /박혜린기자 | rin@gnynews.co.kr



창원시 창동예술촌과 부림창작공예촌의 대표 운영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복입고 골목 여행'이 '제56회 진해군항제'를 맞아 오는 31일 부터 11일간 군항제 명소인 여좌천에서 개최된다.

남여 한복 체험부스 2개소와 한복 관련 악세사리 체험부스 1개소가 설치되는데 다양한 종류의 한복 100벌과 비녀, 머리띠, 족두리 등이 준비된다.

체험부스는 오전 10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며, 무료 체험시간은 2시간이다.

이번 행사는 한복의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한복을 입고 관광을 하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복입고 벚꽃구경'은 체험객 뿐만 아니라 한복의 우아함과 벚꽃의 화사함이 잘 어우러져 주변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성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군항제 참여를 계기로 한복체험을 지역축제에 적극 참여시켜 관람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지원센터(247-0141) 또는 창동예술촌 아트센터(222-2155)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린기자 rin@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